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3일 강원도 유세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이춘상 보좌관의 빈소인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도전과 희망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MB차별화 보수결집 文, 범야권 대결집 기치

“현 정부 국정과탄 반복 않는 새정부 만들 것”

‘文-安-沈’ 연대 외연확대…부동층 끌어안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명박(MB)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면서 득표에 미칠 여과가 주목된다.

박 후보는 당시 부산·경남(PK) 방문에서 “노무현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지만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다. 저는 과거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위장 이혼”이라며 맞받아쳤다. ‘이명박근혜’ 공동책임론에 맞서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박 후보 측은 남은 16일의 대선 기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 실패한 정권의 핵심 실세라는 공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MB 정부의 민생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차별화 전략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SBS가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가 현 정부 국정 과탄의 공동책임자”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대답이 45.1%로 “공감하지 않는다”(46.5%)와 엇비슷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서병수 당무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떤 정부라도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있다”면서 “MB정부가 민생에 실패한 점을 지적하고 박 후보는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유권자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수대결집은 박 후보 측이 굳이 드러내놓고는 내세우지는 않는 전략이다. 자칫 중도층 공략에 차질이 생길까봐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결국 집토끼의 결집이 실질적인 득표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보수를 상징하는 인사들의 끌어안기에도 더욱 주력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적이었던 상도동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주동지회가 지지 선언을 했다.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이인제 전 선진통일당 대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그리고 비박(비박근혜) 그룹의 대표적 인사인 이재오 의원이 앞서 지지 선언에 동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3일 범야권 대결집을 기치로 내걸고 지지층의 외연 확대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첫 선거운동 때 ‘이명박근혜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보수층과의 차별화를 통한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비중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지지세 확산을 위한 전선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커진 여론조사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승부수를 던질 시점이 됐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권의 보수세력 총결집과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로 문 후보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1~2%포인트 빠졌다”며 “이번 주는 야권 주요인사들의 연대와 협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 키위드는 여당의 ‘박-아-이 연대’(박근혜-이회창-이인제)에 맞서 민주-중도-진보 연합을 표방한 ‘문-안-심 연대’(문재인-안철수-

심상정)다. 문 후보를 한가운데 놓고 좌우의 외연을 넓혀 역전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1987년 호헌철폐 투쟁을 위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모두 결집한 ‘범국민’ 애기도 나온다. 심 의원은 지난 2일 문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재정치 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공조체제를 확실히 갖췄다고 보고 있다.

안 전 후보는 이날 해단식을 기점으로 문 후보 지원을 공식화하면 안 전 후보의 후보직 사퇴 이후 부동층으로 돌아선 25% 전후의 표심이 문 후보로 향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중재역을 자처한 범야권 인사들도 대오에 합류하며 지원군 역할을 나서는 형국이다.

다만, 여당과의 전선을 세력 대 세력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범야권 결집론만으로는 중도층과 무당파의 지지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새누리 돈 봉투 살포 의혹 장성경찰 관련자 수사 나서

선관위, 음식물 제공 박근혜 지지자 5명 고발

대통령 선거를 보름여 남겨둔 가운데 새누리당 관계자가 지역 주민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포럼 관계자 5명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선거 막판 혼란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임내현 국회의원(문재인 후보 법률특보실장)은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대회 협력본부 상임특보 백도씨에 지난 2일 장성 모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지인 2명에게 특보 임명장, 명함 각 2통, 수첩 등과 함께 하얀 봉투 2개를 전달하는 장면을 촬영사 주지 무진 스님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는 명백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신속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명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아직도 국민의 표심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박근혜 후보는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당시 무진 스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참석자들을 상대로 공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10만원이 든 봉투 1개와 특정 정당의 임명장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지인이 30년간 선산을 돌봐 지난 추석 무렵에도 편백나무가 쓰러진 것을 수습해 준 사례로 1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선산을 돌봐준 데 대한 대가였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선관위는 임명장 등이 있는 점으로 미뤄 선거운동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는 또 이날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자 A씨 등 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 등은 지난달 12일 순천 모 웨딩홀에서 선거구민 100여 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포럼 전남지부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박근혜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집회에 동원된 고등학생 등 40여 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朴-文, 檢개혁안 충돌

‘상설특검’ vs ‘공수처’ 실효성 없다 서로 반박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양측은 3일 검찰개혁안을 두고 충돌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인 박민식 의원과 민주당 김갑배 반부패특위 위원장은 각각 평화방송과 MBC 라디오에 출연, 상대의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 후보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민정수석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기능을 수행했고, 참여정부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며 “문 후보의 검찰개혁에 진정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구미에 맞는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중수부가 검찰총장 직할 부대라면 공수처는 대통령 직할 부대가 될 수밖에 없어 정

치적 악용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박 후보의 개혁안을 “기존에 진행된 것을 약간 개선한 것으로서 개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절하했다.

박 후보의 상설특검제 공약에 대해 “법무장관 등이 요청하면 그때 임명하고 수사하고 종결되면 해체하기 때문에 현행 사안별 특검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의 공수처 공약에 대해서는 “처장은 인사 추천위에서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기를 5년으로 하면서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게 해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공수처는 검찰비리를 수사하고, 공수처 수사관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어 상호 견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1~2일 사이 각각 2편의 TV 광고를 추가로 내놓으며 본격적인 광고전에 뛰어들었다.

박 후보 측은 1~2일 잇달아 공개한 두 편의 광고에서 위기극복의 리더십과 서민 대통령을 각각 강조했다. 강한 파도 속에서 배가 휘청거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남성 내레이션을으로 “경험 없는 선장은 파도를 피해 가지만 경험 많은 선장은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박근혜가 바꾸는 세상’ 편은 서민을 대변하

박-문 TV광고 2탄 공개

‘서민대통령’·‘정권심판론’ 대결

는 세력소 할머니·가계주인 할아버지가 각각 주인공으로 나와 박 후보를 지지한다. 약간의 유머가 가미됐다는 게 박 후보 측 설명이다.

변추석 홍보본부장은 “서민인 첫 광고에서 후보가 남은 인생을 국민을 위해 바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렸다면 이번부터는 이를 펼쳐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도 2탄으로 정권심판론 콘셉트를 담은 두 편의 광고를 준비했다. 문 후보 측은 2일 ‘국민출발’라는 제목으로 민생 편과 실정 편을 각각 내보냈다.

민생 편은 “지난 5년, 너무 힘들었기에…”

경매를 배우고
수익을 원하는 **/동호인 모집**

1. 모집대상

- 처음으로 경매를 배우실 분
- 경매를 배우고도 수익을 못 내신 분
- 특수 물건과 부실채권에 관심이 있는 분
- 중자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분
-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 하실 분

2. 특전(무료)

- 교재/프린트물
- 매월 회식/임장활동 참가
- 교육기간중 1인 1물건 추천
- 평생 교육/권리분석 혜택
- 본사 사무실 수시 이용

3. 교육기간

- 매주 수/금요일 오후 7시~9시
- 3개월 단위로 반복 순환식 스테디

4. 교육내용

- 지분물건 가장임차인등 특수물건
- NPL(부실채권)물건
- 실전사례 중심 스테디

5. 회비

- 현금 일시불 550만원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환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5879-0005		
수기동 [근린시설 4층] 대652㎡, 건2387㎡ 감정가 14억 최저가 4억5천	숙박시설 [치평동] 대704㎡, 건2042㎡ 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	북구 대촌동[2층공정] > 대지 1506평 > 건물 1031평 > 감정가 39억8천 > 매매가 25억5천
나주남평 [주유소] 대4428㎡, 건553㎡ 감정가 10억6천 최저가 6억8천	신안함해 [횡집, 판매시설] 대4706㎡, 건1123㎡ 감정가 18억 최저가 10억	군산 [마이에너지공정] > 대지 3025평 > 건물597평 > 감정가 99억4천 >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전북김제 [물류센터] 대8076㎡, 건5004㎡ 감정가 25억 최저가 8억	전주시덕진구[유흥주점] 대665㎡, 건988㎡ 감정가 11억4천 최저가 5억8천	목포 상동[숙박시설] 대170평 건544평 감정가18억6천 최저가13억1천
화순이양 [공장] 대6536㎡, 건2056㎡ 감정가 9억8천 최저가 2억8천	보성읍 [상가] 대685㎡, 건763㎡ 감정가 7억2천 최저가 1억5천	여수항동[근린상가] 대136평 건513평 감정가15억 최저가 10억5천
창종로 [근린주택] 대215㎡, 건306㎡ 감정가 4억6천 최저가 2억	목포대양동 [수양관] 대1786㎡, 건408㎡ 감정가 4억8천 최저가 1억7천	무안 망운[숙박시설] 대257평 건346평 감정가11억 최저가6억2천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구례 용방[공정] 대1295평 건363평 감정가13억 최저가9억2천
화순 도곡[무인텔] 대1904㎡, 건2,2628㎡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광산구 신창동[대지] 대150평 감정가8억7천 최저가6억1천
나주중앙동[근린상가] 대330평 건480평 감정가23억1천 최저가16억2천		서구 치평동[숙박시설] 대213평 건617평 감정가32억 최저가22억4천
광산구 월계동[상가] 대135평 건81평 감정가6억3천 최저가3억6천		북구 용전동[공정] 대700평 건423평 감정가22억7천 최저가14억6천
* 함께할 운영자 및 연회원을 모집합니다		
▶ 12월중순open 예정인 (주)솔향기맑은터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한다. * 찬모(여)2명, 설갯이(여)1명, 홍서방6명, 매니저(남, 여)2명, 매점(여)1명, 영업무(남, 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금, 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통림리 171번지 서류접수시 면접, 상담가능(시간여유) H.010-7570-7525		